

조선 전기 서울 지역 지배층 저택의 규범적 건물 유형과 배치

Normative Building Types and Layout of Ruling Class Residences in the Seoul area in the Early Joseon Dynasty

이 종 서*

Lee, Jong-Seo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Abstract

Before the 15th century, the main buildings of the residences of the ruling class in Seoul consisted of Momchae(身梗), Seocheong(西廳), and Naeru(內樓)·Chimru(寢樓). Based on the eq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couple lived in the main building[Momchae] in the center of the mansion, but based on the individu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each had an area consisting of the same section within the building. Naeru·Chimru was the two floors bedroom building became a common living space for the minister and wife, upstairs in summer, downstairs in winter. In preparation for large gatherings and important receptions, an open-structured West Hall(西廳) was located on the west side of the mansion. Momchae, Seocheong, and Naeru·Chimru were the common building types and layouts of the residences of the highest ruling class, including high-ranking officials, until the reign of King Sejong. However, from around the time of King Seongjong, Seocheong and Chimru came to be regarded as privileged and luxurious buildings only allowed for the grand prince's residence. The layout of the bedroom, main building (including Wings), Outer Sarang[外舍廊], and Joyangru[朝陽樓] of Prince Bonggrim's mansion built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clearly shows the transitional period when the arrangement of chimru, main building, and western office was disrupted and the layout changed to the Inner main building(Anchae for wife) and Outer main building(Sarangchae for husband).

주제어 : 저택, 몸채, 서청, 내루, 침루, 외사랑

Keywords : Mansion, Momchae[身梗] West Hall[西廳] Naeru(內樓), Chimru(寢樓), Outer Sarang[外舍廊]

1. 서론

조선시대에 지배층의 집은 대개 ‘택(宅)’으로 칭하였다. 주인이 고귀하며 집이 특별히 크고 호화로우면 ‘저(邸)’로 칭하였다. 본고에서는 왕족과 최고위 관직자의 크고 호화로운 집을 ‘저택’으로 칭하겠다. 저택은 평민 주택에 비해 인문적 요소를 강하게 반영하고, 기후 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건축하였다. 조선 후기 안채와 사랑채로 이루어진 건물 배치는 지배층의 남·녀 구별·차별 의식을 반영하며, 온돌과 마루로 이루어진 공간 분할은 기술력으로 기후 환경의 난점을 극복한 구조이다.

그런데 남성의 사랑채, 여성의 안채로 이루어진 주

택 건축은 조선 후기에 정형화하였다.¹⁾ 조선 전기 지배층 저택에는 온돌을 시설하지 않거나 조선 후기에 비해 제한적으로 시설하였다.²⁾ 그러므로 조선 전기 저택의 건물 배치는 안채·사랑채의 분리와 단일 채를 폐쇄적인 온돌방과 개방적인 대청마루로 나누어 구획하는 조선 후기 주택과 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전기에 남·녀와 부·처에 대한 인식은 조선 후기와 크게 달랐다. 안채·사랑채로 대별되는 조선 후기

* Corresponding Author : ljs6102@naver.com

1) 주남철·김종현, 「한국 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 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12-2, 1996

2) 이종서, 「고려~조선 전기 상류 주택의 방한 설비와 취사 도구」, 『역사민속학』24, 2007

건물 배치는 남·녀의 혼재를 금기시하고, 남편의 위상을 아내보다 높게 여기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그러나 16세기에 들어 성리학은 양반 지배층의 부·처 관계, 가족·친족 관계에 적극 개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성리학적 사유에 기반한 양반층의 주택 구조는 16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17세기 이후에 정형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6세기 이전에 지배층 저택에서는 부·처의 수평적 관계에 기반하며 이를 반영하는 건물 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온돌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므로 조선 후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후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했을 것이다. 그 결과 조선 전기 저택은, 조선 후기의 ‘안채·사랑채’, ‘온돌방·대청’이 그렇듯, 건물명과 구획명이 유형화하고, 규범적인 건물 배치 및 내부 구획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건물명과 배치는 남·녀, 부·처 관계에 대한 인식과 기술력에 기반하고, 또 이를 반영했을 것이다. ‘안채·사랑채’라는 명칭이 위치와 용도를 지시하듯, 조선 전기 저택에서도 건물명은 동일한 기능을 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조선 전기 저택에 ‘몸채[身梗]’, ‘서청(西廳)’, ‘내루(內樓)·침루(寢樓)’가 주요 건물로 유형화하였고, 이들 건물을 규범적으로 배치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건물 내부는 각각의 용도에 맞게 구획하였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 성종 무렵부터 규범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살피고, 17세기 전반 봉림대군 저택에서 안채·사랑채로 분화되어 가던 과도기의 모습을 확인할 것이다. 먼저 문헌자료에서 저택의 건물 성격과 용도, 배치를 확인하고 시각 자료 및 현존 건물에 대입하여 문헌자료에서 도출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증할 것이다.

2. 기록에 나타나는 ‘몸채[身梗], 서청(西廳), 내루·침루(內樓·寢樓)’의 배치와 구조

2-1. 몸채의 배치와 구조

2-1-1. 몸채의 배치와 위치

조선 전기 기록을 살펴보면 고유어 ‘몸채’를 차자표기(借字表記)인 ‘신경(身梗)’으로³⁾ 표현한 사례들이 확인된다. 필자가 확인한 가장 오래된 용례는 1401년(태종 1) 태조가 막내딸 머치(숙신옹주)에게 개성에 가옥을

3) 고유어 ‘채’를 ‘梗’으로 기재한 것은 1230년(고려 고종 17) 경에 작성한 수선사형지안(修禪寺形止案)에서도 확인된다. 형지안에서는 ‘園頭梗’, ‘穀食樓梗’ 등의 건물이 확인된다(노명호 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상)』 373~376쪽, 2000).

지어준 문서에 보인다.⁴⁾ 문서에서는 2칸 ‘몸채[身梗]’에 이어 동부사(東付舍) 1칸, 부엌 1칸을 기록하였다. 이들 단위는 기와를 엮은 데 반해, 이어지는 다른 단위는 초가여서 동부사 1칸과 부엌 1칸이 몸채와 연결된 구조였다고 보인다. 4칸 규모의 ‘안사랑[內斜廊]’도 있으나 초가이고 한자 표기도 ‘斜廊(사랑)’이어서 용도와 성격은 조선 후기의 ‘사랑(舍廊)’과 달랐다고 보인다.

‘몸채[身梗]’는 1608년(광해군 즉위) 명 사신을 접대하고 작성한 『영접도감군색등록』에서도 확인된다. 이 ‘몸채’는 명 사신의 관소였던 남별궁에 있었다. 남별궁은 태종이 경정공주(1384~1455)를 위해 지었고, 이후 1583년(선조 16) 확장하여 의안군에게 주었으며, 임진왜란 때부터 중국 장수와 사신의 숙소와 연회처가 되었다.⁵⁾

‘몸채’는 봉림대군의 저택이었던 어의동궁에서도 확인된다. 1638년(인조 16)에 인조는 봉림대군의 집을 혼례처로 지정하였다. 이때의 혼례 행사를 정리한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에는 ‘몸채대청[身梗大廳]’이라는 표현이 있다.⁶⁾ 몸채로 불리는 건물이 있고 몸채에 ‘대청’으로 불린 구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봉림대군은 1637년에 청에 인질로 갔으므로, 의궤에 기록된 ‘몸채’는 봉림대군이 거주하던 건물임이 분명하다. 이후 어의동궁은 역대 국왕의 가례처로 쓰여 그때마다 의궤를 작성하였다. 1638년 이후의 의궤에서는 ‘몸채’에 해당한다고 여겨지는 건물을 ‘정당(正堂)’으로 썼다.⁷⁾ 고유어를 한자 뜻에 맞게 야화(雅化)한 표기이다. 뒤에서 살필 가옥 제한 규정에서 몸채를 ‘정침(正寢)’이나 ‘정방(正房)’으로 표현한 것도 이러한 기록 태도를 취한 것이다.

‘몸채’ 용례는 조선 전기 양반 주택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에 거주했던 오희문은 임진왜란으로 황폐해진 ‘죽전동 친가’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건물의 종류와 배치를 ‘북·동·서누칸몸채부사랑(北東西樓間身梗付斜廊)’으로 표현하였다. 이 표현은 ‘북·동·서쪽의 층루 건물과 몸채, 몸채에 부속된 사랑’으로 해석된다. 주택 외곽을 층루로 두르고 중심부에 몸채를 두었으며, 몸채에 딸

4) 위 책, 138~140쪽

5)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南別宮)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1, 2020 참조

6) “身梗大廳別文參拾參張付壹浮 西退別文拾肆張付壹浮 東退別文拾陸張付壹浮”(『[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

7) 본고 2장 1-2절 참조

려 사랑을 배치한 구조였다고 이해된다.

‘몸채’라는 표현은 다른 건물에 비해 몸채의 위상이나 중요도를 높게 여기는 인식을 반영한다. ‘몸채’는 주택의 기본이고 핵심 건물인 데 비해 다른 건물을 부가적이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부·처의 공간이 안채와 사랑채로 이원화된 조선 후기와 달리 몸채가 단독으로 부부 생활의 중심 공간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2. 몸채의 구조와 내부 구획

조선 전기 지배층 주택에서 부·처가 함께 ‘몸채’에 거주한 것은 성리학이 가족관계에 개입하기 전의 수평적 부부관계와 부합한다. 그런데 ‘몸채’의 내부 구획이 확인되는 기록을 보면, 비슷한 구획의 두 개 영역으로 몸채를 구성한 사례가 나타난다. 몸채에 방이 없고 대청과 퇴칸만 구획한 사례도 확인된다.

1608년의 『영접도감군색등록』에서는 남별궁의 건물들을 몸채, 침방(寢房) 등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명칭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몸채서채[身梗西梗]’와 ‘서몸채[西身梗]’라는 표현이 나타난다.⁸⁾ 이는 몸채에 서채로 불리는 부분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몸채, 동채, 서채를 연달아 기록한 사례도 확인된다.⁹⁾ 이는 남별궁의 몸채가 동채와 서채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준다.

『영접도감군색등록』에 동채와 서채로 기록한 건물은 1634년에 작성한 『영접도감군색의궤』에서 ‘몸채대청정간[身梗大廳正間]’과 ‘몸채대청[身梗大廳]’으로 표현이 달라졌다.¹⁰⁾ 이후 동채와 서채 중 한 부분을 철거하여, 1819년의 『빈례총람』에는 남은 부분을 ‘남루(南樓)’로 표기하였다. 남루는 퇴칸을 합하여 23칸 이상의 규모였으며 남루의 내부 구획을 비교하면 ‘몸채대청정간’과 일치한다.¹¹⁾ 따라서 1634년 이후 남별궁 몸채의 동채·서채 중 하나를 『빈례총람』에 ‘남루’로 기재했음을 알 수 있다. 『빈례총람』에서는 북쪽에 있는 정사방을 기준으로 남루의 상대적 위치를 ‘서남쪽’으로 기록하였다. 남별궁 사진을 보면 ‘남루’가 정사방(명설루)의

서쪽에 치우쳐 연결되어 있고, 동쪽으로 빈 공간이 보인다.¹²⁾ 그러므로 『빈례총람』에 ‘남루’로 기재한 건물은 몸채의 동채와 서채 중 서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남별궁의 동채와 서채는 내부 구획과 전체 규모가 비슷하였다. 『군색등록』에 서채, 『군색의궤』에 몸채대청정간으로 기록한 건물은 대청, 동·서·남퇴, 북상방, 동부사, 서부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바닥에 석자 95장을 깔았다. 몸채대청으로 표현된 동채는 온돌, 대청, 동·남·북퇴, 북·남소퇴로 구성되었으며, 바닥에 석자 78장을 깔았다. 『빈례총람』에 남루로 기록된 서채(대청정간)가 23칸 이상이었음을 고려하면 동채(대청)도 20칸 가까운 규모였다고 짐작된다. 이처럼 남별궁의 ‘몸채’는 동채와 서채로 구성된 40칸 정도의 대규모 건물로, 각 채는 유사하게 대청, 방, 퇴칸으로 구획하였다.

몸채가 구획이 비슷한 두 개 영역으로 구성된 것은 17세기 전반에 지은 봉림대군 저택에서도 확인된다. 『가례도감의궤(1638)』에서는 ‘몸채[身梗]’ 및 몸채에 연결된 별실의 내부 구획이 확인된다.

표 1. 『가례도감의궤(1638)』의 몸채[身梗]와 서·남 별실의 구획

건물명	구획명	평면규모
서별실	대청	
	온돌	통2칸
	남퇴	2칸
몸채[身梗]	대청	
	서퇴	
	동퇴	
남별실	온돌	2칸
	중대청	
	남퇴	4칸
	서퇴	3칸

위 <표 1>의 건물명과 구획명은 의궤에 기록된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건물은 서별실, 몸채, 남별실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 순서로부터 중간에 몸채가 있고 몸채에 서·남 별실이 연결된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몸채 내부 구획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몸채’라는 표현은 저택의 중심에 위치한 핵심 주거 건물을 연상케 한다. 그런데 봉림대군 저택의 ‘몸채’에는 방을 구획하지 않았다. 주거에 필수적인 온돌방이 없고, 대청과 동·서 퇴만 있다. 반면에 서별실과 남별실은 온돌방과 대청으로 구획하였다. 그

8) “身梗溫埃一間(중략)身梗西梗(중략)西身梗”(『영접도감군색등록』)
 9) “身梗溫埃二間(중략)東梗門鴉靑正布帳一件 西梗門鴉靑正布帳一件”(『영접도감군색등록』)
 10) “身梗大廳正間(중략)東退(중략)西退(중략)南退(중략)北上房(중략)東附舍(중략)西附舍(중략)身梗大廳(중략)大廳(중략)北小退(중략)東退(중략)南退(중략)北退(중략)南小退”(『영접도감군색의궤』)
 11)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南別宮)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1, 2020, 57~58쪽

12) 본고 <그림 1> 좌상 참조

러므로 봉림대군 저택에서 ‘몸채’는 대청과 퇴로 구획한 중심 건물을 뜻하지만, 영역으로는 서·남 별실까지 포괄하는 일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후에 작성한 의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1638년 이후의 의궤에서는 ‘몸채[身梗]’ 표기가 없고 몸채로 짐작되는 건물을 ‘정당(正堂)’으로 표기하였다. 용례를 보면 몸채와 별실을 포괄하여 ‘정당’으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 1819년 의궤에는 ‘본궁의 정당남별실에 추가로 설치하는 병풍을 배설하는 데 투입한 내역[本宮正堂南別室加屏排設所入]’이라는 기록이 보인다.¹³⁾ ‘정당 및 남별실[正堂及南別室]’이나 ‘정당남별실 등[正堂南別室等]’이 아니라 ‘정당남별실’로 표기한 것을 보면 ‘정당의 남별실’로서 남별실을 정당의 일부를 구성하는 건물로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1851년 의궤에서는 ‘정당의 방 배설 및 대청 배설[正堂房排及大廳排設]’이라고 하였다.¹⁴⁾ 1638년에 ‘몸채’ 내부에 방이 없었으므로, 이 표현 역시 몸채와 별실을 통틀어 ‘정당’으로 여겼음을 알려준다.

이처럼 조선 전기의 남별궁과 17세기 전반 봉림대군 저택에서는 ‘몸채’로 불린 건물이 있었고, 이 몸채는 방과 대청, 퇴로 구획된 복수의 채로 구성되었다. 남별궁의 몸채는 몸채동채·몸채서채로 구성되었고, 봉림대군 저택에서는 포괄하여 ‘정당’으로 칭한 서별실·몸채·남별실로 구성되었다. 표기가 다르고 채 구성도 같지 않지만, 몸채 영역이 유사한 구획으로 이루어진 복수의 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일치한다. 그리고 세종과 성종 때의 가사 제한 규정은 이러한 건물 배치와 영역 구분이 지배층 저택에 보편적이었음을 알려준다.

표 2. 세종과 성종 때의 가사 제한 규정 중 정침·정방과 익량의 가구 규모

시기	등급	건물명	도리(척)	너비(척)	비고
1449년 (세종 31)	대군	정침(正寢)	11	18	전·후퇴 합하여
		익랑(翼廊)	11	18	
	중진 및 문무관 2품 이상	정침	9	16	
		익랑	9	16	
1478년 (성종 9)	대군	정방(正房)	11	20	전·후퇴 합하여
		익랑(翼廊)	11	20	
	옹주 및 2품 이상	정방	10	18	
		익랑	10	18	

13) 『[문조신정후]가례도감의궤』

14) 『[철종철인후]가례도감의궤』

위 <표 2>는 세종과 성종 때에 성립한 가사 제한 규정에서 정침·정방과 익량을 정리한 것이다.¹⁵⁾ 두 규정 모두 대군에서 시작하여 등급별로 건물 규모와 제도를 줄여나갔다. 각 등급에서 ‘정침·익랑’, ‘정방·익랑’이라는 건물명이 동일하여 지배층 주택에 규범화한 건물 유형과 배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침·정방과 익랑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정침·정방이 중심 건물이고, 익랑이 정침·정방에 연결된 구조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침·정방과 익랑의 가구 규모와 전·후 퇴칸 배치가 동일하다. 이는 익랑이 정침의 부속 건물이 아니라 정침과 더불어 핵심 주거 건물군을 구성하였음을 알려준다. 익랑의 큰 규모와 높은 위상은 노산군(단종)의 부인 송씨가 내·외명부 여인들에게 수양대군 저택의 ‘익랑’에서 연회를 베푼 것에서도 확인된다.¹⁶⁾

세종과 성종 때의 가사 제한 규정에 보이는 정침·정방과 익랑 배치, 정침·정방과 익랑의 대등한 규모는 남별궁과 봉림대군 저택 몸채 영역의 건물 배치와 유사하다. 특히 몸채와 서·남 별실로 구성된 봉림대군 저택 몸채 영역의 구조와 일치한다. 세종과 성종 때의 가사 제한 규정에 보이는, 정침·정방에 이와 대등한 규모의 익랑이 연결된 구조는 남별궁에서 몸채동채·몸채서채로 나타났고,¹⁷⁾ 봉림대군 저택에서는 몸채·서별실·남별실로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2-2. ‘서청’과 ‘내루·침루’의 배치와 구조

조선 전기 기록에서는 ‘서청(西廳)’으로 기록한 건물

15) “大君六十間 內樓十間 正寢 翼廊 西廳 內樓 內庫 每間長十一尺 廣前後退並十八尺 退柱十一尺 有遮陽斜廊長十尺 廣九尺五寸 柱九尺 行廊長九尺五寸 廣九尺 柱九尺 公主親兄弟親子五十間 內樓八間 正寢 翼廊 西廳 內樓 內庫 每間長十尺 廣前後退並十七尺 退柱十尺 正寢 翼廊 西廳 內樓 有遮陽斜廊 長九尺 廣八尺五寸 柱八尺五寸 行廊與斜廊同 宗親及文武官二品以上四十間, 正寢 翼廊 西廳 內樓 內庫 每間長九尺 廣前後退並十六尺 退柱九尺 正寢內樓有遮陽斜廊 長八尺五寸 廣八尺 柱八尺 行廊與斜廊同 三品以下三十間 內樓五間 間閣尺寸 與二品以上同(『세종실록』 권123, 세종 31년(1449) 1월 26일(정미)); “大君家六十間內 正房 翼廊 西廳 寢樓 並前後退十二間 高柱長十三尺 過樑長二十尺 脊樑長十一尺 樓柱長十五尺 其餘間閣柱長九尺 樑長脊樑長各十尺 王子諸君及公主家五十間內 正房 翼廊 別室 並前後退九間 高柱長十二尺 過樑長十九尺 脊樑長十尺 樓柱長十四尺 其餘間閣柱長樑長各九尺 脊樑長十尺 翁主及二品以上家四十間 三品以下三十間內 正房翼廊並前後退六間 高柱長十一尺 過樑長十八尺 脊樑長十尺 樓柱長十三尺 其餘間閣柱長樑長各八尺 脊樑長九尺 庶人家舍十間內 樓柱長十一尺 其餘間閣柱長各八尺 脊樑長九尺”(『성종실록』 권95, 성종 9년(1478) 8월 22일(신해))

16) 『단종실록』 권13, 단종 3년(1455) 2월 4일(경진)

17) 세종과 성종 때의 가사 제한 규정과 『영집도감군색등록(1608)』의 ‘몸채서채’ 표현을 보면 남별궁의 몸채 영역도 몸채와 동·서익랑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봉림대군 저택 ‘몸채’의 구조를 서·남 별실과 별도로 기록한 『가례도감의궤(1638)』과 달리 『영집도감군색등록(1608)』에서는 몸채 단독의 구획이 확인되지 않는다.

과 ‘내루·침루’로 기록한 건물도 확인된다. 가사 제한 규정에서는 도리, 양통(梁通)의 치수가 ‘정침(정방)·익랑’과 같아 규모가 크고 위상이 높은 건물이었음이 확인된다.

서청은 주로 접객(接客)이나 연회의 장소로 나타난다. 즉위 전 이성계는 개경에 있던 저택의 ‘서청’에서 우인연을 접견하였다.¹⁸⁾ 한성에 지은, 태종 즉위 전의 저택에도 ‘서청’이 있었다. 태종도 이곳에서 방문객을 접대하였으며, 남제가 정안공(태종)을 방문했던 사실을 “신이 나아가서 뵈자 이내 서청에 앉기를 허락하셨습니다[臣進見 乃許坐於西廳].”라고 기록한 것에서¹⁹⁾ 서청에서 접견하는 것을 방문객을 우대하는 의미로 여겼던 정서가 확인된다.

남별궁에도 서청이 있었다. 남별궁이 중국 사신의 관소가 된 뒤, 서청은 공식 연회를 베푸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쓰임새에 연유하여 ‘서연청’이 남별궁 서청의 공식 명칭이 되었다. ‘서청’은 수양대군의 저택에도 있었다. 세종의 왕후가 수양대군 저택에서 병이 나자 승려 49명을 소집하여 ‘서청’에서 법회를 열었고, 왕후가 사망하자 이곳에 빈소를 마련하였다. 단종은 수양대군의 저택을 방문하여 ‘서청’에서 연회를 베풀었다. 권력을 장악한 수양대군은 중국 사신을 ‘서청’에서 맞이하여 다례(茶禮)를 행하였다. 즉위 후 세자가 수양대군 사저에서 병을 치료하다 사망하자 역시 ‘서청’에 빈소를 마련하였다.²⁰⁾

성종의 형 월산대군이 거주한 저택에도 서청이 있었다. 월산대군 저택은 임진왜란 때 국왕이 임시로 거주하는 시어소(時御所)가 되었고 이후 정릉동행궁으로 불렸으며, 광해군 때에는 경운궁이 되었다. 선조는 이궁의 서청에서 중국 장수와 사신을 접견하고 신하들과 국정을 의논하였다. 광해군은 서청에서 즉위했으며, 인조도 광해군을 몰아내고 서청에서 즉위하였다. 경운궁의 서청은 이후 인조의 즉위를 기념하여 ‘즉조당(卽祚堂)’으로 이름 지었다. ‘서청’은 16세기에 건축한 왕족 저택에서도 확인된다. 명종이 즉위 전 거주했던 어의동궁에도 ‘서청’이 있었다.²¹⁾

‘서청’의 한자 뜻을 풀이하면 ‘서쪽에 있는 대청’이

된다. 그러나 방위뿐 아니라, 관청의 ‘동헌(東軒)’이 그렇듯, 일정한 용도나 성격을 전제한 명칭이었다고 보인다. 관행상 저택의 서쪽에 있으면서 중요한 접객이나 대규모 행사의 장소로 정형화된 건물을 가리켰다고 보인다. 서청에서 대규모 상례(喪禮)나 불교 의례, 연회를 거행한 것에서 규모가 크고 개방적인 구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청의 개방적인 내부 구획은 남별궁의 서청(서연청)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1608년 의례에서 남별궁 서연청은 ‘정칸(正間), 남퇴, 동퇴, 북소퇴, 서퇴, 후정칸’으로 구획명을 기록하였다. 1634년의 『영접도감군색의례(1634)』에서는 ‘정칸, 동퇴, 서퇴, 남퇴, 북중(北中), 북극(北極), 북퇴(北退)’로 기록하였다.²²⁾ 구획 기록에서 ‘온돌’이나 ‘방’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동·서·북 장지[東西北障子]’를 기록하여²³⁾ 남쪽은 띄어 놓고, 동쪽·서쪽·남쪽을 차단했음이 확인된다. 서연청은 장지를 철거하면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건물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왕비와 세자의 빈소가 되고, 대규모 의식과 연회를 베푸는 장소가 되기에 적합하다. 조선 전기 지배층 저택의 서청은 빈객 접대나 대규모 회합에 특화된 건물로서 주거 기능이 약했음을 알 수 있다.

‘서청’은 세종과 성종 때의 가사 제한 규정에서도 확인된다.²⁴⁾ 세종 때 규정에서는 모든 등급의 저택에 ‘서청’ 명칭이 나타나는 데 반해 성종 때 규정에서는 대군 저택에만 나타난다. 세종 때에는 지배층 저택에 보편화된 건물과 배치였으나, 성종 때에는 대군 저택에만 짓거나 허용되는 특수한 건물로 성격이 변했을 가능성이 있다.

‘내루(침루)’도 세종 때까지는 지배층 저택에 보편적으로 배치했지만, 이후 특권적이고 사치스러운 건물로 성격이 변했다고 여겨진다. 세종 때 규정에서는 모든 등급의 저택에 ‘내루’를 기재하였다. 내루의 규모는 대군 저택 60칸 중 10칸에서 시작하여 3품 이하 관리의 30칸 중 5칸까지 줄었다. 도리칸과 양통의 치수는 정침·익랑과 동일하다. 저택마다 규모가 큰 누각이 솟은 것이 조선 전기 한성의 도시 풍광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내루의 구조와 용도는 층루 구조의 침소였음이 기록

18) 『태조실록』권1, 충서

19) 『태종실록』권8, 태종 4년(1404) 10월 21일(기축)

20) 『세종실록』권111, 세종 28년(1446) 3월 13일(경진); 『세종실록』권111, 세종 28년(1446) 3월 27일(갑오); 『단종실록』권13, 단종 3년(1455) 2월 4일(경진); 『단종실록』권14, 단종 3년(1455) 4월 27일(임인); 『세조실록』권9, 세조 3년(1457) 9월 4일(을축)

21) 『명종실록』권21, 명종 11년(1556) 10월 22일(정미)

22)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1, 2020, 58~59쪽

23) “西宴廳排設(중략)東西大障子十二浮內十一浮仍用一浮今新造(중략)東西北障子草注紙(중략)北障子着油”(『영접도감군색의례』)

24) 본고 각주 15) 참조

에서 확인된다. 궁궐에는 ‘누침전·누침실’로 기록된 침소용 중층 건물이었다. 이들 건물은 일층과 이층을 주거에 적합하게 구획한 층루였다. 제안대군 저택에도 층루 구조의 누침실이 있었다.²⁵⁾ 성종 때의 규정에서는 대군 저택에 ‘침루(寢樓)’를 기재하여 세종 때 규정의 내루가 곧 침루였음을 알려준다.

남별궁에도 내루·침루로 비정되는 건물이 있었다. 1606년 이후 산우루(山雨樓), 1735년 이후 명설루(明雪樓)로 불린 층루가 이에 해당한다. 17세기 전반의 의례와 『빈례총람(1819)』에서는 층루 내부의 구획이 확인된다. 남별궁의 명설루(산우루)는 아래층과 위층을 모두 주거가 가능하게 구획하였다. 아래층은 중국 정사의 거처로 방·대청·양방·전퇴·후퇴로 구획하였다. 서쪽에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층교(層橋)가 있었다. 위층은 대청과 마루방인 ‘양방(涼房)’으로 구획하였다.²⁶⁾ 이로부터 남별궁의 명설루(산우루)는 세종 때 규정의 내루, 성종 때 규정의 침루로서 기록에서 누침실, 누침전, 침루 등으로 나타나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남별궁의 명설루(산우루)는 15세기 지배층 저택의 ‘침루·누침실’의 침소 기능이 상층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알려준다. 하층은 춥고 건조한 계절에 적합하게, 상층은 덥고 습한 계절에 적합하게 구획하고 시설한 층루였다. 1608년 의례에서 정사가 거주하는 산우루 하층을 ‘동상방·동상침방’으로 기록한 것도²⁷⁾ 침루 하층의 침소 기능을 알려준다.

그런데 모든 등급의 저택에 ‘내루’를 기재한 세종 때 규정과 달리 성종 때 규정에서는 대군 저택만 정방·익랑·서청·침루·기타간각(其他間閣)의 순으로 기재하여 세종 때 규정과 일치한다. 왕자제군의 저택은 서청과 침루 기재 없이 정방·익랑에 이어 ‘별실·기타간각’을, 그 이하는 ‘기타간각’만 기재하였다. 이러한 등급별 차이는 세종 때에 정침·익랑만큼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건물이었다는 ‘내루(침루)’가 ‘서청’과 더불어 대군 저택에만 허용되는 건물로 성격이 바뀌었음을 알려준다.

25) 이종서, 「조선 전기의 주거용 층루 건축 전통」, 『역사민속학』 22, 2006 참조.

26)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1, 2020, 56~57쪽

27)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1, 2020, 62쪽. 『빈례총람』에는 명설루(정사방) 서쪽에 부사방을 기록하였고, 1608년 의례에서는 이 건물을 ‘서상방·서상침방’으로 기록하였다. 남별궁의 전모가 확인되는 사진에서도 몸채와 서청 사이에 이 건물이 보인다. 따라서 남별궁은 임진왜란 이전부터 침소용 건물이 두 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상침방이 몸채와 연결된 데 반해, 서상침방은 독립된 채로 건축되었다. 서상침방은 방문객을 위한 침소로 지었다고 짐작된다.

성종 때 규정에서 모든 등급의 저택에 누기둥 길이를 정하면서, 대군 저택에만 ‘침루’로 표기한 것은 층루 구조의 침소용 건물을 저택의 필수적인 건축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3. 시각 자료의 저택 건물 및 배치

3-1. 남별궁의 규범적 몸채·내루(침루)·서청 배치

앞 장에서는 기록을 살펴 조선 전기 지배층 저택의 규범적인 건물 배치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세종 무렵 지배층 저택의 핵심 건물은 몸채, 서청, 내루(침루)로 유형화되었다. 주인 부·처가 거주하는 몸채는 내루가 유사한 구획으로 이루어진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남별궁에서는 몸채 동채·서채로, 세종과 성종 때의 규정에서는 정침(정방)·익랑으로, 봉림대군 저택에서는 몸채·서별실·남별실로 나타났다. 서청(西廳)은 격이 높은 접객이나 대규모 연회의 장소로 지었다. 남별궁 서청은 내부에 벽이 없는 개방적 구조였다. ‘내루’는 세종 때 규정에 대군 이하 모든 등급의 주택에 기재하였으며, 용도는 침소였다. 성종 때에는 침소용 층루를 짓는 관행이 쇠퇴하여 대군 저택에만 ‘침루’를 기재하였다. 서청 건축 관행도 쇠퇴하여 성종 때 규정에 역시 대군 저택에만 기재하였다.

태종 때에 처음 짓고 선조 때에 확장한 남별궁은 몸채·서청·내루(침루)로 구성된 규범적 배치를 1897년(광무 1)까지 유지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명과 청의 사신이 묵는 관소가 되어 17세기 이후 1819년 이전에 몸채 동채를 철거했고, 1734년(영조 10)에 서청이 무너져 원형대로 복원했을 뿐²⁸⁾ 건물의 위치와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남별궁이 담겨 있는 사진에서는 몸채·서청·내루(침루)의 위치와 모습이 잘 나타난다.

서울 동남쪽 고지대에서 시가를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에서는 남향으로 자리잡은 남별궁의 건물들이 모두 확인된다. 이 건물들을 건물의 상대적 위치와 명칭을 기록한 『빈례총람(1819)』과 대입하면 남루(몸채서채)·서청·내루(명설루)의 위치와 겉모습이 확인된다.²⁹⁾

28)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1, 2020, 59쪽

29) <그림 1>에 제시한 남별궁 사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양상현, 『그리피스 컬렉션의 한국사진』 눈빛, 2019(좌상) ; 서울역사박물관, 『100년 전 선교사의 서울살이』, 학술총서18, 2022(우상) ; MFA collection(Museum of Fine Arts Boston) Lowell collection(Southse tapartpalaceoccupiedbyChinesecommissioners(NRICPRelicNo.:2902)(좌하) ; 독립기념관, 『근대한국인의 삶과 독립운동』, 서계필기념재단 기증자료, 2017(우하)



그림 1. 남별궁의 전경과 건물 사진

『빈례총람』에서 북쪽에 위치한 명설루 하층의 정사방이 다른 건물들의 상대적 위치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 사진(좌상)에서 명설루는 다른 건물에 비해 높이가 가장 높고 규모가 큰 북쪽 건물에 해당한다. 성종 때부터 침루 건축 관행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사진의 명설루는 태종 때의 건축일 가능성이 크다.

『빈례총람』에 정사방 서남쪽으로 위치를 기록한 ‘남루’ 즉, 몸채 서채는 궁역 밖 동남쪽에서 찍은 사진(우상)에서 전체 모습이 잘 나타난다. 『빈례총람』에 위치를 각기 정사방 남쪽과 동쪽으로 기록한 내동루와 내남루와의 관계에서도 남루의 위치와 모습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사진에 보이는, 명설루 동쪽과 남쪽의 층루 구조의 단칸통 낭무(廊廡)는 17세기에 작성한 의궤와 『빈례총람』에 ‘내동루’, ‘내남루’로 기록한 건물로 비정된다. 사진에서 남루(몸채 서채)는 용마루 북쪽 부분이 명설루(내루·침루)의 지붕과 이어져 평면이 연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설루(산우루)는 남별궁을 지을 때 내루(침루)로 계획되었으며, 몸채와 함께 지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좌하)에 보이는 ‘남루’는 남북축 건물과 동서축 건물이 결합된 ‘T’자 구조이다. 전면의 동서축 건물은

높은 축대 위에 지었다. 『빈례총람』에서 이 건물을 ‘남루’로 칭한 것은 남쪽 부분의 누각 형태에 기인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누각형 건물과 직교하는 남북축 건물이 명설루(산우루)와 연결되어 있다.

17세기 의궤에 ‘서청’으로, 『빈례총람』에 정사방 서쪽 담장 밖에 있다고 기록한 ‘서연청(서청)’은 궁역의 가장 서쪽에 보인다. 전경 사진(좌상)을 보면 명설루와 규모가 비슷하다. 서청(서연청)이 아직 남아 있던, 환구단 공사 중에 찍은 사진(우하)에는 벽이 없고 기둥만 보여 대규모 행사에 적합한 개방적 구조였음이 확인된다.³⁰⁾ 이처럼 남별궁은 세종 때 가사 제한 규정에 기재된 건물들이 기록과 사진에서 모두 확인된다. 남별궁의 건물 종류와 배치 방식은 남별궁만의 특징이 아니라 15세기 지배층 저택에 공통된 것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2. 월산대군 저택의 서청과 침루 배치

몸채·내루(침루)·서청으로 구성된 조선 전기 저택의

30) 사진의 서연청은 1734년(영조 10)에 무너져 다시 지은 것이다. 내부의 칸 구획은 17세기 의궤의 기록과 일치하여 같은 규모로 복원했음을 알 수 있다.

규범적 건물 배치는 경운궁(덕수궁)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석어당(昔御堂)과 즉조당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의 석어당과 즉조당은 1903년에 불타 다시 지은 것이지만, 1901년에 작성한 『진찬의궤』의 건물 그림과 비교하면 현재의 건물도 원형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재건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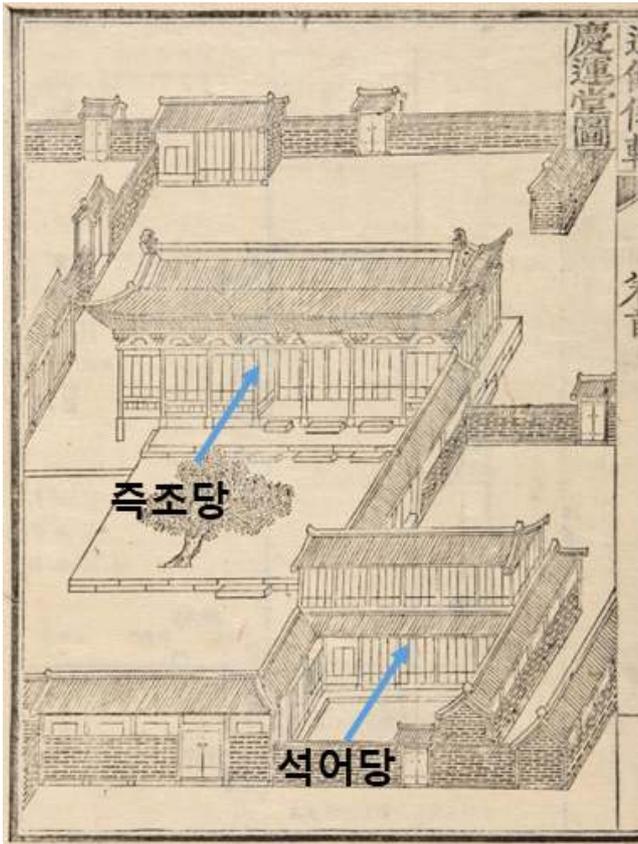


그림 2. 1901년 『진찬의궤』의 즉조당과 석어당

그림에서 즉조당은 석어당의 서북쪽에 있다. 선조가 시어소로 삼았을 때에 ‘서청’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이 건물은 월산대군 저택의 ‘서청’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퇴칸 창호의 모습에서 서쪽을 방으로, 동쪽을 대청으로 구획한 것으로 보여 평면 전체를 개방할 수 있었던 남별궁 서청과 다르다. 이는 선조가 이 건물을 편전으로 사용하면서 편전 용도에 맞게 변형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즉조당 동남쪽의 석어당은 기록에서 성격과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인조가 경운궁 구역의 건물 대부분을 민간에게 돌려주되, 이후 즉조당과 석어당으로 명명되는 두 건물만 남겨둔 것에서 석어당에도 즉조당 만큼 큰 의미를 부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석어당을 민간에 돌려주지 않고 남긴 것은 선조가 이 건물에 거처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인조가 경운

궁에 속한 건물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선조(先朝)의 침전’ 두 곳을 제외했다는 표현에서도 확인된다.³¹⁾ 석어당은 ‘선조의 침전’으로 표현된 두 곳 중 하나이며, 이후 즉조당으로 불리게 된 서청은 선조의 편전이었으므로 석어당은 선조의 침전이 된다.

그림에서 외양을 보면 석어당은 세종 때 규정의 ‘내루’, 성종 때 규정의 ‘침루’에 해당한다. 창호를 보면 석어당 1층은 좌·우가 방이고 중앙이 대청인 듯하다. 1층 평면을 방과 대청으로 구획한 층루 구조는 남별궁의 내루·침루였던 명설루(산우루)와 같다. 그런데 침루인 석어당이 서청인 즉조당의 남동쪽에 위치한 것은 남별궁과 다르다. 남향인 남별궁에서 침루(명설루·산우루)는 저택의 북쪽에 위치하여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에 역시 남향이었다고 보이는 월산대군 저택에서 침루는 서청 남쪽에 있어 외부에서 잘 보이고 서청에 드나드는 외부인에게도 노출되기 쉬운 위치이다.

이로부터 성종 무렵 내루·침루의 위치와 용도가 세종 이전과 달라졌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세종 이전에는 저택 영역의 후면에 지은 반면, 성종 이후에는 전면에 지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월산대군 저택에서 ‘몸채’는 석어당 뒤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선조의 침전인 석어당(침루)에서 편전인 즉조당(서청)으로 이어지는 국왕과 신하의 동선을 고려해도 몸채가 석어당 뒤에 있어야 합리적이다.

이는 석어당 전면의 문을 ‘내중문’으로 부른 것에서도 확인된다. 선조는 ‘내중문(內中門)’ 밖 막차(幕次)에서 향과 축문을 전달하였다.³²⁾ 월산대군 저택은 ‘내’와 ‘외’의 영역 구별이 있었고, ‘내중문’은 외와 내를 가르는 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조가 침전에서 사망하여 성복(成服) 의례를 치를 때에 광해군은 ‘내중문’을 열어 승정원과 홍문관 관원들이 입시하는 예를 이루도록 허락하였다.³³⁾ 이로부터 석어당 전면의 내중문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몸채가 석어당 전면에 있었다면 이러한 명령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석어당은 몸채 영역의 전면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월산대군 저택에서 ‘몸채’ 혹은 ‘정침·정방’ 등으로 불렸을 건물의 위치와 구조는 기록이 없어 파악하기

31) “上命以慶運宮所屬家舍 還給其主(중략)先朝寢殿兩所外 餘皆還于本主”(『인조실록』 권2, 인조 1년(1623) 7월 12일(경자))

32) 『선조실록』 권61, 선조 28년(1595) 3월 29일(임인)

33)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 광해군 즉위년(1608) 2월 6일(계해)

어렵다. 다만, 선조가 행궁 ‘대내’의 여러 곳이 손상되고 온돌이 내려앉았다는 사실을 듣고 보수를 명령한 것에서³⁴⁾ 왕비는 ‘대내’로 불린 별도의 건물에 거처했으며, 이 건물이 월산대군 저택의 침루(석어당) 후면에 위치한 몸채였을 가능성이 있다. 선조의 시신이 있는 침전(석어당)에 승정원과 홍문관 관원 외에 총호사(總護使)와 예관(禮官)까지 입시를 허락하자는 건의에 대해 광해군이 “대비가 거처하는 곳과 가까우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慈殿所御至近 何以爲之]”고 답한 것에서도³⁵⁾ 몸채가 석어당 후면에 위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조가 민간에 돌려주지 않은 ‘선대왕의 침전’ 두 곳이 즉조당과 석어당인지, 침루에 해당하는 석어당과 몸채일 가능성이 큰 ‘대내’인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즉조당과 석어당을 임진왜란의 고난과 인조반정을 기념하는 건물로 1903년까지 보존했음을 고려하면, ‘선대왕의 침전’으로 표현된 월산대군 저택의 두 건물 중 하나는 서청인 즉조당이고 다른 하나는 침루였다고 보이는 석어당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월산대군 저택의 몸채 영역은 몸채와 내루·침루를 전후로 배치한 남별궁과 달리 전면에 침루를 두고 후면에 몸채를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3-3. 봉림대군 저택의 과도기적 건물 배치

앞 장에서 성종 때의 가사 제한 규정을 세종 때 규정과 비교하여 지배층 저택의 규범적 건물 유형과 배치에 일부 변화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앞 절에서는 서쪽에 서청이 있고, 북쪽에 내루(침루)가 있으며, 내루 남쪽에 몸채가 이어진 남별궁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어 월산대군 저택의 건물이었던 덕수궁 즉조당과 석어당을 살펴 건물 유형은 남별궁과 같되, 침루(내루)가 몸채의 남쪽에 위치한 점이 남별궁과 달랐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건물 유형과 배치의 변화는 봉림대군 저택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봉림대군 저택은 인평대군 저택과 마주하여 동향으로 지었다. 1638년 의궤에는, 이후에 작성한 의궤와 달리, 건물 명칭을 몸채, 침실 등 보편적 위상이나 용도에 기반한 명칭으로 기재하였다. 봉림대군이 국왕이 되자 저택은 국왕의 잠저(潛邸)로 보호받아 주요 건물들을 원형대로 보존하였다. 후대의 국왕들도 계속 이곳에서 혼인하였다. 그리고 1792년(정조 16)에 왕명으

로 제작한 저택 그림이 전하여³⁶⁾ 의궤의 건물 기록과 대조할 수 있다.

아래 <표 3> 에서 보듯 1638년에 봉림대군 저택의 건물은 침실, 서별실, 몸채, 남별실, 외사랑, 조양루 순으로 기록하였다.³⁷⁾ 가장 먼저 기록한 ‘침실’은 구획명을 기록하지 않은 3칸과 남퇴, 상방, 북퇴로 구획하였다. 이 건물은 침소용으로 지었고, 구획명을 기록하지 않은 3칸이 침소의 핵심 기능을 하는 공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 『가례도감의궤(1638)』의 건물 및 건물 내부 구획 명칭과 규모

건물명	구획명	규모	건물명	구획명	규모
침실	?	3칸	남별실	온돌	2칸
	남퇴	3칸		중대청	
	상방(上房)	2칸		남퇴	4칸
	북퇴	5칸		서퇴	3칸
서별실	대청		외사랑	온돌	2칸
	온돌	통2칸		온돌	반칸
	남퇴	2칸		대청	
서퇴	2칸	북퇴			
몸채 [身梗]	대청			서퇴	
	서퇴			남퇴	
	동퇴		조양루 (朝陽樓)		

몸채는 내부에 사실(私室)이 없는, 공식성과 개방성이 강한 건물이었고, 서별실과 남별실은 대청과 온돌로 구획하여 주거 기능을 갖춘 건물이었다. 서별실, 몸채, 남별실 순으로 기재하여 몸채가 중간에 있고 별실이 몸채와 연결된 구조였음을 앞 장에서 추론하였다.

‘외사랑’은 건물명으로부터 몸채와 별실 영역 밖, 대문 가까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온돌방과 대청, 퇴로 구획되어 주거에 적합한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양루’는 내부 구획 명칭과 규모가 의궤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다른 기록을 보면 아래층도 주거 기능이 있는 층이었다.³⁸⁾

<표 3> 에 정리한 건물명은 이후 작성한 의궤에서 조양루만 일치한다. 다른 건물들은 아화(雅化)한 이름인 ‘정당(正堂)’, 고유명인 ‘낙선재(樂善齋)’, ‘계경헌(啓

36) 김종태, 「[인평대군방전도]와 어체제문을 통해 본 조선왕실의 우에 선양」, 『민족문화』 45, 2015

37) 외부에서 찾아온 인사들의 대기소 역할을 한 ‘왕자빈청(王子賓廳)’은 <표 3> 에 정리하지 않았다. 온돌 1칸, 마루 2칸, 퇴(退伊, 봉당?) 3칸으로 구성된 왕자빈청은 대문 안 중문 밖 두 개의 소규모 건물 중 하나로 보인다.

38) “황주인 황공 등 13인이 따라 오니 효종이 조양루 아래에 거주하게 하였다[杭州人黃功等十三人從之來 孝宗居之朝陽樓下].”(『研經齋全集』 권43 「皇明遺民傳[七]」)

34) 『선조실록』 권65, 선조 28년(1595) 7월 15일(병술)

35) 『광해군일기[중초본]』 권1, 광해 즉위년(1608) 2월 5일(임술)

慶軒)으로 나타난다. 1792년에 그린 저택 그림에서는 낙선재, 계경헌, 조양루를 해당 건물 옆에 기재하였다. 1638년 의궤와 그 이후 작성한 의궤 기록, 저택 그림을 비교하고 종합하면 봉림대군 저택 건물의 유형과 배치, 용도, 외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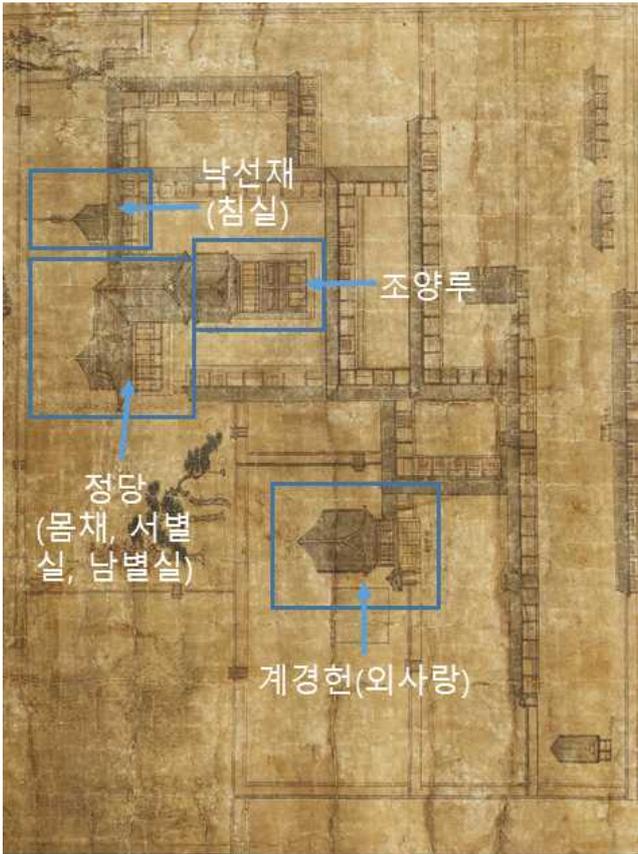


그림 3. 봉림대군 저택의 건물 구성과 배치

1638년 의궤의 ‘침실’은 ‘낙선재’에 해당한다. 1759년의 『가례도감도청의궤』에는 낙선재 내부 구획을 마루방[涼房] 3칸, 마루방 1칸 반, 남퇴 3칸 반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구획은, 북퇴를 제외하면, ‘침실’과 비슷하다.³⁹⁾ 더욱이 1638년 의궤에는 ‘침실’에 ‘온돌’ 기재가 없고, 1759년 의궤에는 ‘낙선재’에 마루방만 기재하였다. 이로부터 1638년의 ‘침실’은 1759년의 ‘낙선재’로 덮고 습한 계절에 적합한 침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낙선재는 저택 후면의 남북축 행각과 연결된 동서축 건물로 확인된다. 후원 영역과 접하여 한적하고 조용한 침소의 위치로 적합하다. 남퇴·북퇴도 동서축 건물인 침실(낙선재)의 구조에 부합하다. 남향한 침실(낙선재) 건물은 내진칸에 동서로 두 개의 마루방

39) 1759년 의궤의 구획명은 낙선재를 수리·보수한 내역 부분에서 확인되므로 수리가 필요 없는 구획은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을 두고 마루방 남쪽과 북쪽을 퇴칸으로 구획하였다.

침실에 이어 기록한 서별실, 몸채, 남별실은 그림에 명칭을 기재하지 않아 개별 건물을 특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청·서퇴·동퇴로 이루어진 ‘몸채’의 내부 구획을 적용하면 그림에서 ‘몸채’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배층 주택에서 ‘몸채’는 저택의 핵심부에 위치하였다. 봉림대군 저택에서 몸채는 내진칸 전체가 대청이었으므로, 정면에서 보면 전면 퇴칸과 분합이 보이게 된다. 또한 건물이 남북축으로 자리해야 동퇴와 서퇴 구성이 이루어진다. 그림에서 이러한 조건과 일치하는 건물은 조양루와 이어지며 “└” 형태로 연결된 세 건물 중 중간 건물에 해당한다. 이 몸채와 이어진 두 건물이 서별실과 남별실일 것이다. 기록을 통해 추론했거니와 개방성과 공식성이 강한 ‘몸채’와 내부 구획이 비슷하고 사적 성격이 강한 두 채의 별실이 연결된 구조였음이 그림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앞 장에서 살폈듯 이 세 건물을 1638년 이후의 의궤에서 ‘정당’으로 통칭했을 것이다.

〈표 3〉에서 ‘외사랑’은 각기 2칸 규모와 반칸 규모의 온돌방과 대청, 북·서·남퇴로 이루어졌다. 봉림대군 저택에 있던 ‘외사랑’은 세종 때 가사 제한 규정의 ‘사랑(斜廊)’보다 규모가 월등하게 크다. 세종 때 ‘사랑’은 가장 높은 등급이 도리 10척, 양통 9.5척에 불과하였다. 고주 규정도 없어 삼랑가의 ‘一’자 형 나무 구조였다고 보인다.⁴⁰⁾ 성종 때의 규정에는 사랑 기제가 없다. ‘기타간각’에 포함되는 부수적 건물로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봉림대군 저택의 ‘외사랑’은 내진과 외진으로 구성된 대규모 건물로, 온돌방과 대청, 퇴칸으로 평면을 구획하였다. 한자 표기도 세종 때 규정 중의 ‘斜廊(사랑)’이 아니라 ‘舍廊(사랑)’이다. 구조에 근거하여 성립했던 명칭이 용도와 관련된 것으로 변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봉림대군 저택에서 ‘외사랑’에 해당하는 건물은 ‘계경헌’외에는 찾을 수 없다. 동서축으로 배치하였으며 그림에는 5단의 돌출대 위에 지은 동측면이 보인다. 동서축 배치와 계경헌 서쪽이 후원인 것을 고려하면 계경헌은 북퇴·서퇴·남퇴를 구획하기에 적절하다. 봉림대군 저택의 ‘외사랑’은 조선 전기 저택의 ‘서창’ 기능을 대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아가 내부를 주거에 적합하게 구획하여 사적 성격의 주거처도 될 수 있었다.

‘조양루(朝陽樓)’는 아래층도 실내로 구획한 층루였

40) 본고 주 15) 참조

음이 그림에서 확인된다. 이 점에서 세종 때의 내루, 성종 때의 침루, 남별궁의 명설루(산우루)와 같다. 그러나 위치는 부부의 침소가 되기에 적절치 않다. 조양루는 몸채[正堂]의 전면에 위치하여 우뚝한 위용을 외부에 과시하기에 적절하다. 이와 같은 위치는 월산대군 저택의 침루로 비정되는 석어당과 같다. 또한 봉림대군 저택의 후면에는 판방과 대청으로 구획된 1층 구조의 침소가 별도로 있었다. 그러므로 조양루는 침루와 구조가 같을지라도 침소 전용 건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군에게만 허락되는 특권, 권위, 사치 등을 과시하는 성격의 건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성종 때의 가사 제한 규정에서 침루의 이와 같은 성격 변화를 추론했거니와 봉림대군 저택의 조양루는 월산대군 저택의 침루(석어당)와 더불어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1664년(현종 5)에 부마 저택의 ‘이층각(二層閣)’이 사치스럽다는 비난을 받아, 결국 국왕이 철거를 명령한 것은⁴¹⁾ 왕족 저택에서 층루가 특권과 사치를 과시하는 건물로 지목되어 소멸해 갔음을 알려준다.

4. 결 론

본고에서는 기록과 현존 건물 및 시각 자료를 살펴 조선 전기 지배층 저택의 유형화된 건물과 규범적 배치를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 저택에 유형화한 건물은 ‘몸채, 서청(西廳), 내루(침루)’였다. 몸채(身梗)는 저택 중심부에 있으며, 주인 부·처가 거처하였다. 한자로는 ‘정침·정방·정당’으로 불렸으며, 가구 규모가 동일한 ‘익랑·별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몸채와 익랑이 결합된 건물군 전체를 몸채나 정당 등으로 통칭하기도 하였다. 몸채 내부는 동일하게 방·대청으로 구획한 두 개 영역으로 이루어졌다.

태종 때에 건축하여 선조 때 확장한 남별궁의 몸채는 각기 방·대청을 갖춘 동채와 서채로 구성되었다. 17세기 전반 봉림대군 저택의 몸채 영역은 몸채, 몸채와 연결된 서·남별실로 구성되었다. 몸채에는 방이 없었고, 두 채의 별실에는 동일하게 온돌방과 대청이 있었다. 조선 후기 의궤에서는 이들 세 건물을 ‘정당’으로 포괄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남별궁과 봉림대군

저택의 몸채 영역 구성은 세종과 성종 때 가사 제한 규정의 ‘정침·익랑’ 또는 ‘정방·별실’ 구성을 적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몸채(정침·정방) 내부를 구획이 동일한 2개의 영역으로 구성한 것은 조선 전기의 수평적 남녀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 전기까지 아내는 남편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며, 부·처가 각자의 재산과 친족 관계를 보유하고 있었다.⁴²⁾ 이와 같은 부·처의 수평성과 독립성에 따라 몸채를 동일 구획의 두 개 영역으로 구성했다고 여겨진다. 조선 후기에는 남녀 차별 의식에 기반하여 안채, 사랑채 분리가 이루어졌지만, 조선 전기에는 부처의 수평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영역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부·처가 몸채에 함께 거주한 것은 부부관계의 평등성을 반영하고, 몸채가 동일 구획의 두 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부 관계의 독자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청’ 명칭은 저택의 서쪽 영역에 지은 관행에 기인한다. 가사 제한 규정에서 서청은 몸채(정침·정방)·익랑과 규모가 같았다. 고려말 개경의 저택부터 명종이 1545년 즉위 전에 거주했던 저택에 서청이 있었다. 서청의 모습은 남별궁 사진과 대한제국기 의궤의 덕수궁 즉조당 그림에서 보인다. 용도가 확인되는 여러 기록은 서청이 접객이나 회합에 적합하게 규모가 크고 개방적인 건물이었음을 알려준다. 남별궁 서청의 내부 구획은 거주 기능이 약하고 접객과 회합에 특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서청은 성종 때의 가사 제한 규정에서 대군 저택에만 기록하였고, 17세기 전반의 봉림대군 저택에는 없다. 봉림대군 저택에는 ‘외사랑(外舍廊, 계경헌)’이 보인다. 이 외사랑은 규모가 크고 내부에 온돌방이 있었다. 15세기 이전 사랑보다 가구 규모나 면적이 월등하게 커지면서 주거 기능이 강화되었다.

봉림대군 저택의 외사랑은 조선 전기 서청의 접객과 회합 기능을 담당했다고 보인다. 나아가 남별궁 서청과 달리 온돌방과 대청으로 구획했다는 점에서 남녀 구별 및 차별 의식에 따른 주거처의 분리가 저택 건축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알려준다. 세종 때에는 소규모 낭무이고, 성종 때에는 ‘기타간각’에 불과하였던 사랑이 17세기에는 서청의 기능을 수용하는 한편, 주인 남성이 늘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 된 것이다.

내루·침루도 이미 성종 때부터 대군 저택에나 허용되는 특권적이고 사치스러운 건물이 되어 갔다. 남별

41) “부마의 저택을 왜 꼭 굉장하고 사치하게 하기에 힘써야겠습니까?...성상께서 대신의 말을 받아들여 그 이층각을 헐라고 명하셨으니 들은 사람이면 누군들 기뻐하지 않겠습니까[駙馬第宅 何必務爲宏侈(중략) 聖上採納大臣之言 命毀其二層閣 其在聽聞 孰不喜悅].”(『승정원일기』 185책 현종 5년(1664) 10월 15일(계유))

42) 이종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2009, 신구문화사 참조

궁과 월산대군 및 봉림대군 저택의 내루·침루를 비교하면 위치가 저택의 후면에서 전면으로 바뀌었다. 본래 내루·침루는 지배층 주택에 온돌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 계절별 난점을 극복하고자 지었다고 생각된다. 15세기 이전에는 1층도 침소로 시설하여 부부는 몸채 내 각자의 영역에서 생활하다가 내루·침루에서 함께 잠을 잤다고 보인다. 춥고 건조한 계절에는 1층에서, 덥고 습한 계절에는 2층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온돌방과 대청마루의 구획이 이루어지자⁴³⁾ 층루의 성격이 특권과 사치를 과시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위치가 저택의 전면으로 옮겨졌다고 보인다. 17세기 전반의 봉림대군 저택에서 15세기라면 내루·침루가 있었을 저택 후면에 마루방[涼房]만 있는 단층 ‘침실’을 지었다. 반면에 층루 구조의 조양루를 외부에 노출되는 전면에 지었다. 이처럼 지배층 저택에서 층루의 성격과 위치가 변하는 한편, 사치를 배격하고 검소함을 강조하는 성리학자들의 비판을 받아 주거용 층루 건축 전통은 소멸하게 되었다.

지배층일수록 주거 건축의 건물 유형과 배치는 인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핵심으로 하는 인문적 요인과 기후환경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기술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조선 후기 안채·사랑채 배치와 온돌방·대청마루의 구획은 조선 후기의 인문적 요인과 기술력이 작용한 결과이다. 조선 전기에는 이와 다른 요인이 작용하여 조선 후기와 전혀 다른 건물 유형과 배치가 이루어졌다.

부·처 관계의 수평성에 기반하여 부부가 저택 중심부의 몸채에 거주하되 부·부 관계의 독자성에 기반하여 각자가 동일한 구획으로 이루어진 영역을 몸채 내에 보유하였다. 계절별 난점을 극복하고자 지은 내루·침루는 부·처의 침소가 되었다. 다수의 회합이나 중요한 접객을 위하여 저택 영역의 서쪽에 개방적 구조의 서청을 지었다. 몸채·서청·침루는 세종 때까지 고위관료를 포함한 최고위 지배층 저택의 보편적 건물 유형과 배치였다. 그러나 성종 무렵부터 서청과 침루는

대군 저택에만 허용되는 특권적이고 사치스러운 건물로 변해갔다. 17세기 전반에 지은 봉림대군 저택의 침실, 몸채(서·남별실 포함), 외사랑, 조양루 배치는 침루·몸채·서청 배치 규범이 흐트러지면서 안채·사랑채 배치로 변해가던 과도기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사 사

남별궁 사진의 존재와 소장처를 알려주고, 특히 남별궁 남루 사진을 발견하여 파일을 제공해 주신 김버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회화 및 의례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s://kyu.snu.ac.kr/>) “자료 및 원문검색”
『인평대군방전도(1792)』, 『영접도감군색등록(1609)』, 『영접도감군색의례(1634)』,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례(1638)』, 『빈례총람(1819)』, 『[문조신정후]가례도감의례(1819)』, 『[철종철인후]가례도감의례(1851)』, 『진찬의례(1901)』
- 『승정원일기』: <https://sjw.history.go.kr/main.do>
-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main/main.do>
『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단종실록』, 『세조실록』, 『명종실록』, 『광해군일기(중초본)』
- 김종태, 『[인평대군방전도]와 어제 제문을 통해 본 조선왕실의 우애 선양』, 『민족문화』 45, 2015
- 노명호 외, 『한국고대중세고문서연구(상)』, 2000
- 이종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2009, 신구문화사
- 이종서, 『조선전기의 주거용 층루 건축 전통』, 『역사민속학』 22, 2006
- 이종서, 『고려~조선전기 상류 주택의 방한 설비와 취사 도구』, 『역사민속학』, 24, 2007
- 이종서, 『조선시대 남별궁(南別宮)의 평면 구조와 변화』, 『건축역사연구』, 29-1, 2020
- 주남철·김종헌, 『한국 전통주거에 있어서 안채와 사랑채의 분화 과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2, 1996

접수(2023.09.04.)

게재확정(2023.10.11.)

43) 15세기 이전 저택 건물의 바닥 소재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나, 자료와 연구의 부족으로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다. 조선 전기 지배층 주택에는 온돌이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실내에 화로로 난방하고 내한용 깔개를 깔았으며, 병풍과 휘장으로 벽과 문을 가렸다(이종서, 『고려~조선 전기 상류 주택의 방한 설비와 취사 도구』, 『역사민속학』 24, 2007). 그러나 방·대청의 바닥 소재가 흙이나 전돌이었는데, 목판[마루]이었는데는 분명치 않다. 공중에 들린 구조는 방한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목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돌이나 흙바닥은 고온다습한 계절의 주거에 취약하므로 침소용 층루를 건축하다가 구들과 마루를 시설하여 여름철 주거의 난점을 극복하면서 침소용 층루 건축이 쇠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다.